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박선구·홍성호



건설정책리뷰 2017-05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박선구 · 홍성호

2017. 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요 약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건설일자리는 임시직 이외에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등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건설부문 고용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건설업종별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을 분석하였음.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탄력성의 계수값은 설명변수로 건설투자액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 건설기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따라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건설 업종별 고용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음.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전문건설업은 1.121%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건설업 0.028%,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0.884%에 비해 높게 도출됨.
 - 또한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전문건설업만이 고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이는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인 건설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탄력성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에 대해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였음.
 - 건설투자 및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임금개선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기성은 종합건설업이 높게 나타남. 또한 근로자 세부 직종별 임금개선 효과는 기술직 근로자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자, 기능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설투자, 기성,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창출과 임금개선 부문에 있어 하도급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함. 따라서 건설업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발주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됨.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역시 크기 때문임.
-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산업 내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함.

목 차

I. 서 론	1
II. 건설업 고용구조 및 특성	3
1. 건설업 특성	3
2. 건설업 고용 현황	4
3. 건설근로자 직종별 현황	9
4. 건설고용과 건설지표의 상관관계	16
III. 건설업 고용창출효과 분석	21
1. 분석자료 및 방법	21
2.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24
3. 임금탄력성 분석결과	29
4. 소 결	32
IV. 결 론	34
참고문헌	36

I. 서론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임.
 -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며, 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목표임.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건설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는 상황임.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안 등에서도 건설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일부에서는 건설업 일자리가 단기에 그치며, 임시직 중심으로 질 낮은 고용으로 평가하기도 함. 그러나 건설업 일자리는 임시직 이외에도 사무직, 기능직, 기술직 등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의 40% 이상을 건설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유발계수¹⁾는 2010년 10.5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 평균 8.7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40조 9,000억원의 생산 감소, 13조 4,000억원의 부가가치 감소, 26만 6,000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감소는 자기 산업의 고용 감소분이 14만 9,000명이며, 타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 감소분은 11만 7,000명으로 나타남.
 - 특히, 건설업의 위축은 5대 취약 산업(기초화학제품 제조업, 철강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가운데 가장 큰 파급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²⁾.

1) 해당 산업에서 10억원 규모의 산출물을 생산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동자 수를 의미함.

2) 5대 취약 산업 생산 감소효과의 52.5%, 부가가치 감소효과의 64.5%, 고용감소 효과의 74.9%가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됨.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역시 높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함.
 - 그간 건설업 고용에 대한 논의는 고령화, 외국인근로자 등에 국한되어 왔으며, 실제로 건설지표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였음.
 - 특히, 건설지표와 건설고용의 연관성, 건설업종별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 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임.
 -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건설부문 고용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건설업의 고용과 임금창출효과를 살펴봄.
 - 이를 위해 건설업 고용현황을 다양한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 건설근로자의 업종별 고용형태 등을 조사함.
 - 건설투자, 수주, 기성 등과 건설고용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지표가 건설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건설근로자 직종별 고용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의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을 분석함.

- 이는 건설산업 내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고용창출 능력과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건설업 고용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 건설업 고용구조 및 특성

1. 건설업 특성

- 건설노동의 수요는 건설업 생산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로서 건설업 생산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 등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건설업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쳐 건설고용의 차별성으로 나타남.
 - 건설업은 발주자의 개별적 주문 또는 입·낙찰제도 등을 통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 이전에 공급자를 선정하는 '선계약-후생산' 구조의 산업임.
 - 건설업 생산은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와 수직적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건설생산은 전적으로 주문생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그 수요가 불안정하고 단절적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가 요구됨. 그 결과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인력 등 생산요소를 모두 보유할 필요가 없음.
 - 또한 건설 생산물의 고가성, 복합성, 주문생산 등의 특성은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이는 노동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침.
 - 그 결과, 건설업체는 고용의 내부화와 외부화를 결정하게 되고, 또다시 일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상용직/임시직 등으로 선택적 고용전략을 구사하게 됨 (심규범, 2009).

〈표 2-1〉 건설업과 제조업의 특성 비교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생산물 성격	· 반영구적, 내구재, 공공재적 성격, 생산물의 고가성, 복합성 등	· 소비재, 소모재, 생산물의 저가성, 단순성 등
생산수요	·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 수요의 안정성
생산방식	· 선주문 후생산, 일회적·개별적생산	· 선생산 후판매, 반복적·표준적 생산
생산구조	· 공종별/전문별 분할도급구조	· 대부분 직접 생산
작업환경	· 옥외생산으로 기후의존성, 현장의 이동성	· 옥내생산으로 기후와 무관, 현장의 고정성
고용구조	· 일용직/임시직 중심의 고용구조	·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직업훈련	· 기업이 아닌 현장에서 습득	· 기업 중심의 훈련 실시

자료: 방하남 외(199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 건설업 고용 현황³⁾

- 2016년 말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약 184.5만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7%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전체 취업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정체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08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7.7%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제조업 종사자 수는 0.3%p, 서비스업 종사자는 2.6%p 각각 증가하였음.

〈표 2-2〉 산업별 종사자 수 (단위: 천명)

산업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8	23,577(100.0%)	3,963(16.8%)	16,094(68.3%)	1,812(7.7%)
2009	23,506(100.0%)	3,836(16.3%)	16,278(69.3%)	1,720(7.3%)
2010	23,829(100.0%)	4,028(16.9%)	16,461(69.1%)	1,753(7.4%)
2011	24,244(100.0%)	4,091(16.9%)	16,844(69.5%)	1,751(7.2%)
2012	24,681(100.0%)	4,105(16.6%)	17,260(69.9%)	1,773(7.2%)
2013	25,066(100.0%)	4,184(16.7%)	17,593(70.2%)	1,754(7.0%)
2014	25,599(100.0%)	4,330(16.9%)	18,009(70.4%)	1,796(7.0%)
2015	25,936(100.0%)	4,486(17.3%)	18,269(70.4%)	1,823(7.0%)
2016	26,235(100.0%)	4,481(17.1%)	18,604(70.9%)	1,845(7.0%)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2007년) 기준이며, 서비스업은 산업분류코드 D∞U(건설업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은 노동인력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산업에서 청년취업자(생산가능인구 15세~29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2016년 청년취업자의 비중은 12.5%로 2008년에 비해 2%p 감소하였음.
 - 특히, 건설업의 청년취업자 비중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임. 건설업의 청년취업자 비중은 2008년 8.5%에서 2016년 5.8%로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 산업의 46.4%, 제조업의 42.3%, 서비스업의 44.6%에 불과한 수준임.

3) 건설업 취업자 현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함.

〈표 2-3〉 산업별 청년취업자 비중 (단위: %)

산업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8	14.5	15.6	15.7	8.5
2009	14.1	15.6	15.1	8.0
2010	13.7	15.0	14.6	6.8
2011	13.0	14.6	13.8	6.0
2012	12.6	14.1	13.3	6.5
2013	12.3	13.5	13.0	5.5
2014	12.1	12.6	12.7	5.7
2015	12.2	13.8	12.7	5.6
2016	12.5	13.7	13.0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반면, 장년층(생산가능인구 55세 이상)의 건설업 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건설업의 장년취업자 비중은 15%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29.3%로 나타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건설업의 장년취업자 비중은 제조업(16.3%)과 서비스업(24%)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2-4〉 산업별 장년취업자 비중 (단위: %)

산업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8	18.4	10.2	15.2	15.0
2009	18.8	9.8	15.8	14.3
2010	19.7	10.8	17.2	17.8
2011	20.5	11.1	18.2	19.5
2012	21.9	12.5	19.6	21.0
2013	22.8	12.8	20.6	23.0
2014	23.8	14.4	21.9	25.4
2015	24.3	15.0	23.0	26.6
2016	25.2	16.3	24.0	2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은 청년층의 진입 감소와 장년층의 유입으로 산업 내 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음. 그 가운데서도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2015년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의 비중은 83.2%로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 비중 62.7%에 비해 20.5%p가 높은 수준임.

-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 중에 있음.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2000년 47.5%에서 2015년 62.7%로 15.2%p 증가한데 비해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58.8%에서 83.2%로 24.4%p 증가하였음.

[그림 2-1]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40대 이상 구성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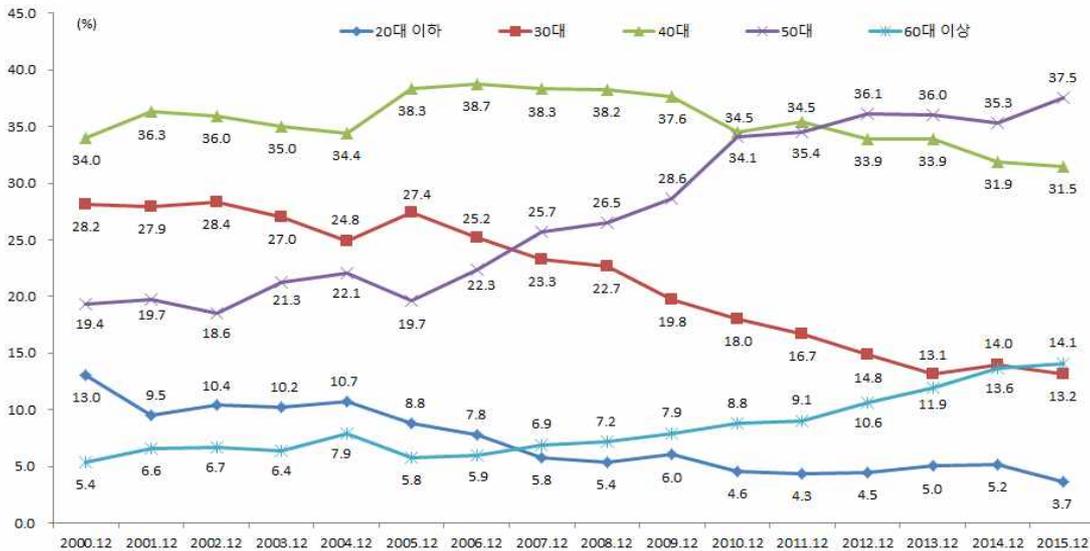


자료: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홍보자료(2016)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50대 이상 장년층의 유입과 2,30대 청년층의 이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0대 건설기능인력의 비중은 소폭 감소(2.5%p)한데 비해, 5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26.8%p 증가하였고, 2,30대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2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추이 (단위: %)



자료: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홍보자료(2016)

- 건설업의 특성(옥외생산, 근력소모 등)상 여성취업자 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2016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여성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2.4%인데 비해, 건설업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중 (단위: %)

산업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8	41.9	32.0	43.7	9.7
2009	41.6	30.2	43.7	9.5
2010	41.6	30.7	43.9	9.5
2011	41.6	31.1	43.7	8.9
2012	41.7	30.9	43.9	8.3
2013	41.9	30.0	44.4	7.9
2014	42.0	29.9	44.7	8.4
2015	42.3	29.4	45.2	8.4
2016	42.4	29.0	45.4	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건설업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건설업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51.9%로 제조업(14%)과 서비스업(37.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건설업은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비전형 근로자⁴⁾'의 비중이 70.5%(전체 산업 34.4%)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6〉 산업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산업별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8	33.8	16.6	38.1	54.9
2009	34.9	16.2	39.1	54.9
2010	33.4	14.9	37.7	51.8
2011	34.2	15.6	38.5	51.4
2012	33.3	14.0	37.9	52.6
2013	32.6	13.9	37.0	51.3
2014	32.4	13.1	37.1	49.7
2015	32.5	13.7	37.1	52.3
2016	32.8	14.0	37.3	51.9

주: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4) 일반적으로 비전형근로자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근로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틀어 말함.

□ 한편,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적으로 근로일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2008년: 22.5일→2016년: 21일).
- 특히, 건설업의 근로일수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 2016년 건설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7.9일로 2009년에 비해 3.2일 줄어들었음. 또한 건설업의 근로일수는 전체산업의 85.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단위: 일)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 실태조사

□ 건설업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타 산업에 비해 적은 것은 비정규직의 근로일수가 크게 낮게 나타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2016년 건설업 정규직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일로 타 산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일수는 12.9일에 불과하여 전체 산업에 비해 4.7일이 적음. 또한 2016년 건설업 비정규직의 근로일수는 2009년(18.3일)에 비해 5.4일이 줄어들었음.
- 이는 건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비정규직(일용직 등)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2-4]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일수 (단위: 일)



<정규직 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 실태조사

<비정규직 근로자>

3. 건설근로자 직종별 현황

1) 건설업 전체

□ 통계청 건설업 조사⁵⁾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 건설업 근로자 수는 1,533,976명으로 나타남. 직종별로는 임시직근로자의 비중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술직근로자(25.3%), 사무직근로자(12.1%), 기능직근로자(8.7%)의 순으로 나타남.

- 건설업 전체 근로자는 2004년 1,737,166명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표 2-7〉 건설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건설산업 전체 근로자 ⁶⁾	건설산업 사무직 근로자	건설산업 기술직 근로자	건설산업 기능직 근로자	건설산업 임시직 근로자
1994	1,460,821	138,010	130,529	112,587	1,060,184
1995	1,550,016	158,546	140,350	125,087	1,104,904
1996	1,610,909	158,715	169,370	133,242	1,127,891
1997	1,643,813	163,604	173,785	118,430	1,166,049
1998	1,476,198	140,065	165,358	104,937	1,043,614
1999	1,320,495	137,274	165,275	103,709	892,131
2000	1,342,192	152,122	201,466	115,293	853,653
2001	1,422,618	165,631	214,295	122,643	900,613
2002	1,524,562	181,551	254,707	121,019	948,472
2003	1,719,074	207,715	301,333	123,746	1,068,324
2004	1,737,166	215,893	310,348	134,563	1,058,369
2005	1,718,181	233,510	319,438	123,762	1,026,260
2006	1,716,837	220,178	318,849	125,442	1,047,071
2007	1,727,536	218,977	343,709	123,676	1,035,945
2008	1,657,122	209,479	339,472	130,698	972,375
2009	1,661,000	213,376	343,711	141,992	956,935
2010	1,625,313	204,226	344,365	149,124	922,728
2011	1,574,587	209,341	358,842	144,431	857,236
2012	1,508,443	195,482	362,904	136,535	808,916
2013	1,547,486	188,410	376,454	134,146	844,044
2014	1,532,226	186,025	386,483	130,553	824,880
2015	1,533,976	185,360	386,444	132,889	825,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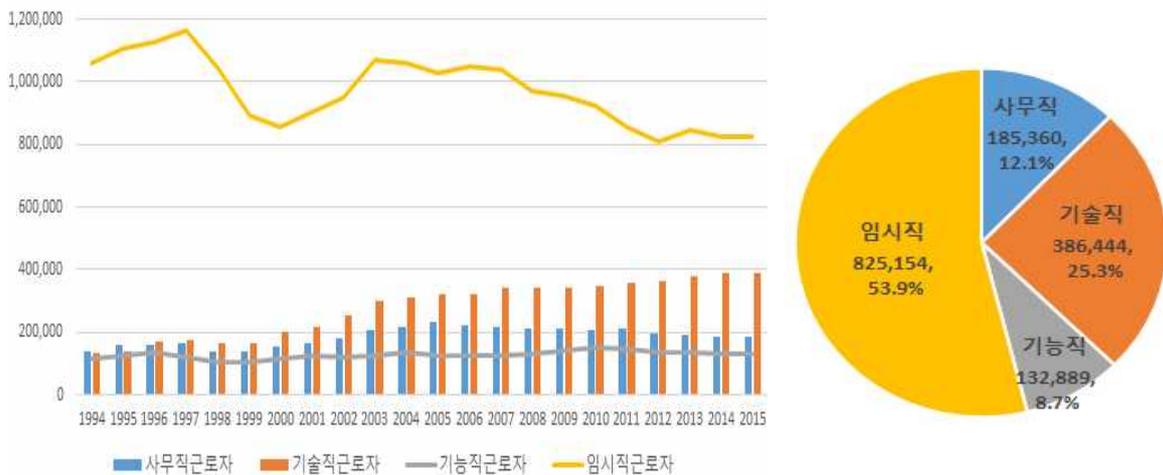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 5) 건설근로자 직종별 고용현황은 통계청의 '건설업조사' 자료를 활용함. '건설업조사'는 당해 연도 건설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건설업취업자 수와 일부 차이가 있음.
- 6) 사업주 및 무급종사자는 4,12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논의에서 제외함.

□ 건설업에 고용된 근로자 직종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사무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수는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능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건설산업 전체 근로자의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무직 근로자 12.1%, 기술직 근로자 25.3%, 기능직 근로자 8.7%, 임시직 근로자 53.9%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1994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임시직은 23.5만명이 줄어들었으며, 기술직은 22.6만명이 증가하였음.

[그림 2-5] 건설업 근로자 직종별 고용현황 추이 (단위: 명)



〈건설업 근로자 직종별 고용 추이〉

〈2015년 근로자 직종별 현황〉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 건설업 종사자 중 임시직 근로자가 감소하는 것은 건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16).

- 건설현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건설기계 활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했고,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비율 역시 늘어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줄어들었음. 여기에 경기 침체와 건설인력 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 것 역시 이유임.
- 한편,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비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움. 조사 기관마다 큰 편차가 있기 때문임).

7) 외국인 근로자수는 6만4천명부터 25만명까지 조사기관에 따라 추산하고 있는 수치가 다양함. 대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취업자가 많으며, 미등록 취업자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업종임.

2) 종합건설업

- 2015년 말 기준 종합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479,710명으로 건설업 전체 근로자(1,533,976명)의 31.3%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공종별로는 건물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2.7%(300,854명)이며, 토목건설업의 근로자가 37.3%(178,856명)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1996년 626,947명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종합건설업 기술직근로자는 크게 늘어났으나, 임시직근로자의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임.

〈표 2-8〉 종합건설업 종사 전체 근로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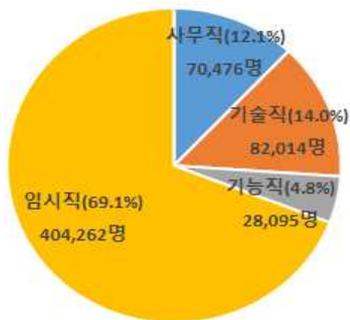
연도	종합건설업 전체 근로자	종합건설업 사무직 근로자	종합건설업 기술직 근로자	종합건설업 기능직 근로자	종합건설업 임시직 근로자
1994	584,862	70,476	82,014	28,095	404,262
1995	611,664	80,792	85,802	35,844	409,171
1996	626,947	83,530	110,963	39,645	392,781
1997	609,215	78,168	105,215	31,358	394,463
1998	537,439	62,535	94,560	28,233	352,058
1999	501,364	64,421	97,304	28,651	310,974
2000	474,404	56,469	114,563	26,542	276,739
2001	477,575	58,031	119,955	24,510	274,984
2002	503,539	65,072	126,182	28,014	284,197
2003	588,767	82,221	150,085	23,985	332,405
2004	562,206	83,563	148,301	24,814	305,460
2005	571,327	95,662	156,737	22,151	296,711
2006	578,672	84,664	156,676	21,056	316,213
2007	576,381	76,458	168,225	18,519	313,121
2008	529,586	67,602	156,062	23,694	282,168
2009	490,642	67,509	163,428	22,990	236,653
2010	468,169	64,315	160,846	22,118	220,831
2011	463,238	68,564	169,776	21,155	203,687
2012	480,684	69,066	179,758	21,156	210,650
2013	495,578	64,885	182,875	22,617	225,157
2014	481,469	63,734	186,513	21,197	209,988
2015	479,710	64,215	179,987	23,606	211,869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 종합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기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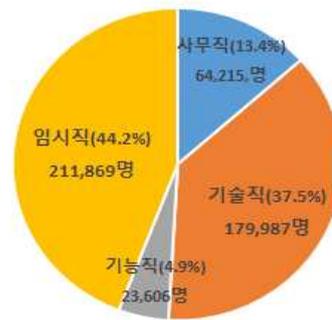
- 종합건설업 기술직근로자는 1994년 82,014명에서 2015년 179,987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동 기간 사무직근로자는 8.9%(6,261명), 기능직근로자는 15.9%(4,489명)가 각각 줄어들었음.
- 특히, 임시직근로자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임시직근로자는 1994년 404,262명에서 2015년 211,869명으로 47.6%(192,393명)가 줄어들어, 종합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종합건설업의 임시직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하도급을 통한 분업이 가속화되어, 실제 대부분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종합건설업 종사 근로자 기간별 비교



〈1994년 직종별 고용현황〉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2015년 직종별 고용현황〉

□ 한편, 종합건설업 내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의 직종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토목건설업의 경우 건물건설업에 비해 임시직근로자의 비중이 작고, 기술직근로자의 비중이 큰 특성이 있었음.

[그림 2-7] 종합건설업 세부 업종별 근로자 비교(2015년)



〈종합건설업 - 건물건설업〉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종합건설업 - 토목건설업〉

3) 전문건설업

- 전체 건설근로자 중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2015년 기준 건설산업 전체 근로자의 68.7%를 차지하는 1,054,266명으로 건설부문 내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1994년부터 2015년(22년간)까지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 수가 전체 건설산업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1%임. 또한 건설산업 직종별 전체 근로자 중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 수의 평균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무직근로자(60.8%), 기술직근로자(47.6%), 기능직근로자(79.6%), 임시직근로자(70.0%)임.

〈표 2-9〉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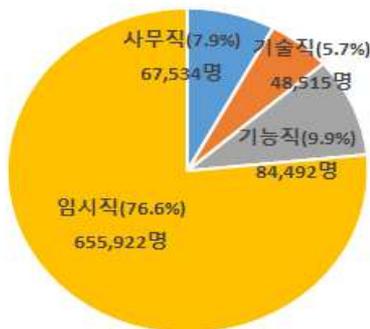
연도	전체 근로자	구성비	사무직 근로자	구성비	기술직 근로자	구성비	기능직 근로자	구성비	임시직 근로자	구성비
1994	875,959	60.0%	67,534	48.9%	48,515	37.2%	84,492	75.0%	655,922	61.9%
1995	938,352	60.5%	77,754	49.0%	54,548	38.9%	89,243	71.3%	695,733	63.0%
1996	983,962	61.1%	75,185	47.4%	58,407	34.5%	93,597	70.2%	735,110	65.2%
1997	1,034,598	62.9%	85,436	52.2%	68,570	39.5%	87,072	73.5%	771,586	66.2%
1998	938,759	63.6%	77,530	55.4%	70,798	42.8%	76,704	73.1%	691,556	66.3%
1999	819,131	62.0%	72,853	53.1%	67,971	41.1%	75,058	72.4%	581,157	65.1%
2000	867,788	64.7%	95,653	62.9%	86,903	43.1%	88,751	77.0%	576,914	67.6%
2001	945,043	66.4%	107,600	65.0%	94,340	44.0%	98,133	80.0%	625,629	69.5%
2002	1,021,023	67.0%	116,479	64.2%	128,525	50.5%	93,005	76.9%	664,275	70.0%
2003	1,130,307	65.8%	125,494	60.4%	151,248	50.2%	99,761	80.6%	735,919	68.9%
2004	1,174,960	67.6%	132,330	61.3%	162,047	52.2%	109,749	81.6%	752,909	71.1%
2005	1,146,854	66.7%	137,848	59.0%	162,701	50.9%	101,611	82.1%	729,549	71.1%
2006	1,138,165	66.3%	135,514	61.5%	162,173	50.9%	104,386	83.2%	730,858	69.8%
2007	1,151,155	66.6%	142,519	65.1%	175,484	51.1%	105,157	85.0%	722,824	69.8%
2008	1,127,536	68.0%	141,877	67.7%	183,410	54.0%	107,004	81.9%	690,207	71.0%
2009	1,170,358	70.5%	145,867	68.4%	180,283	52.5%	119,002	83.8%	720,282	75.3%
2010	1,157,144	71.2%	139,911	68.5%	183,519	53.3%	127,006	85.2%	701,897	76.1%
2011	1,111,349	70.6%	140,777	67.2%	189,066	52.7%	123,276	85.4%	653,549	76.2%
2012	1,027,759	68.1%	126,416	64.7%	183,146	50.5%	115,379	84.5%	598,266	74.0%
2013	1,051,908	68.0%	123,525	65.6%	193,579	51.4%	111,529	83.1%	618,887	73.3%
2014	1,050,757	68.6%	122,291	65.7%	199,970	51.7%	109,356	83.8%	614,892	74.5%
2015	1,054,266	68.7%	121,145	65.4%	206,457	53.4%	109,283	82.2%	613,285	74.3%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기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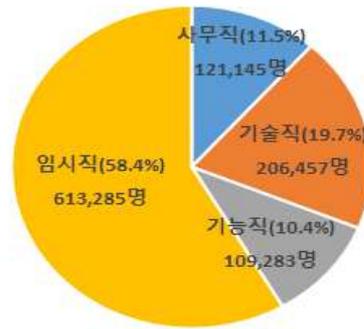
- 전문건설업 임시직근로자는 1994년 655,922명에서 2015년 613,285명으로 6.5% (42,637명) 감소하였음. 반면, 동 기간 기능직근로자는 29.3%(24,791명)가 증가한 109,283명으로 나타남.
- 또한 사무직근로자와 기술직근로자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직근로자는 1994년 67,534명에서 2015년 121,145명으로 79.4%(53,611명)가 증가하였음. 기술직근로자의 증가폭은 더욱 큰데, 1994년 48,515명에 불과하던 전문건설업 기술직근로자는 2015년 206,457명으로 무려 425% 증가하였음.
- 일반적으로 사무직, 기술직 근로자는 종합건설업, 기능직, 임시직 근로자는 전문건설업이 주로 고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임시직, 기능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술직, 사무직 근로자도 많이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 이후부터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1994년 48.9%→2015년 65.4%)와 기술직근로자(1994년 37.2%→2015년 53.4%)의 절반 이상은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이 실제 많이 고용하고 있음(표 2-9 참조).

[그림 2-8] 전문건설업 종사 근로자 기간별 비교



<1994년 직종별 고용현황>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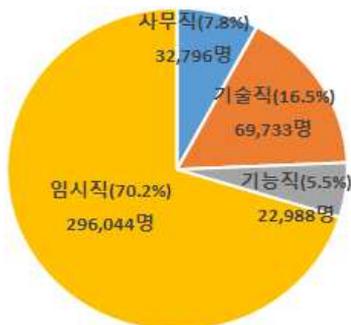
<2015년 직종별 고용현황>

□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별(통계청 산업분류: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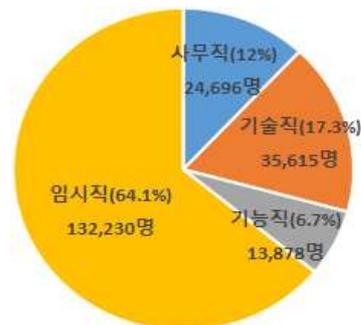
- 전문건설업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공사업이 422,1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254,943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206,977명, 기계설비공사업 170,206명으로 각각 나타남.

- 전문건설업 중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공사업은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27.5%, 전문건설업 종사자의 40%를 담당하고 있음. 타 전문건설업 업종에 비해 임시직근로자의 고용이 70.2%로 높게 나타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은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13.5%, 전문건설업 종사자의 19.6%를 담당하고 있음. 타 전문건설업 업종에 비해 임시직(64.1%)과 사무직근로자(12%)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기계설비공사업은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11.1%, 전문건설업 종사자의 16.1%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의 비중이 59.7%로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직 근로자의 비중은 2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 종사자의 16.6%, 전문건설업 종사자의 24.2%를 담당하고 있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타 전문건설업과 차별적인 고용 특성을 보이고 있음. 임시직근로자의 비중은 33.2%로 타 전문건설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기능직(23.4%) 및 기술직근로자(26.3%)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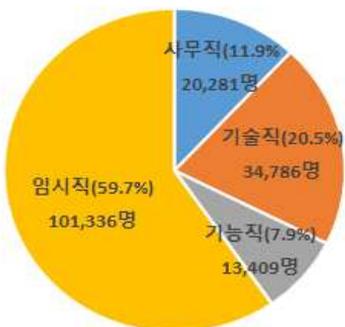
[그림 2-9]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별 근로자 비교(2015년)



〈전문건설업 -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공사업〉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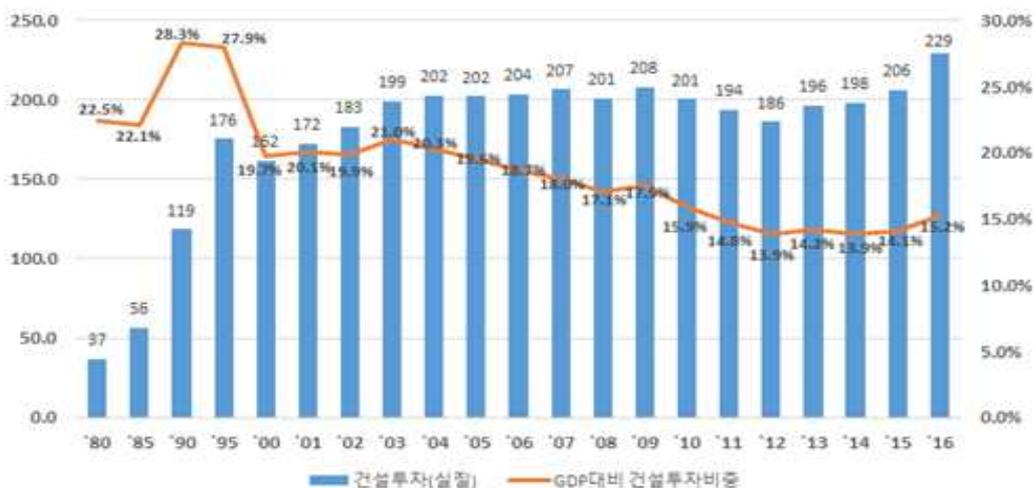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4. 건설고용과 건설지표⁸⁾의 상관관계

1) 건설투자자와 고용

- 건설투자는 건설지표 중 동행지표로 건설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임.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16년 15.2%로 2015년부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초·중반 신도시 개발 추진, 주택보급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으로 20% 후반대를 기록한 후, 최근에는 15%대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투자 증감률은 1980년 이후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5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음.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건설투자 성장률은 GDP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됨.
- 한편, 향후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부문 건설투자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 역시 추세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5% 내외로 OECD 평균 10.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미국 7.6%, 일본 8.3%, 영국 9.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건설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큼.

[그림 2-10] 연도별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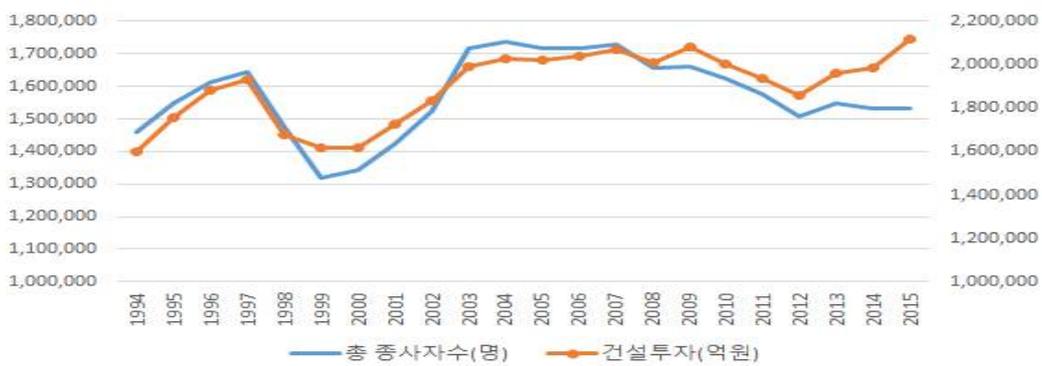
8) 본고에서 분석하는 건설지표(건설수주,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건설투자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데이터를 사용함.

□ [그림 2-11]와 같이 건설투자와 건설고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설투자와 건설고용의 상관관계는 0.82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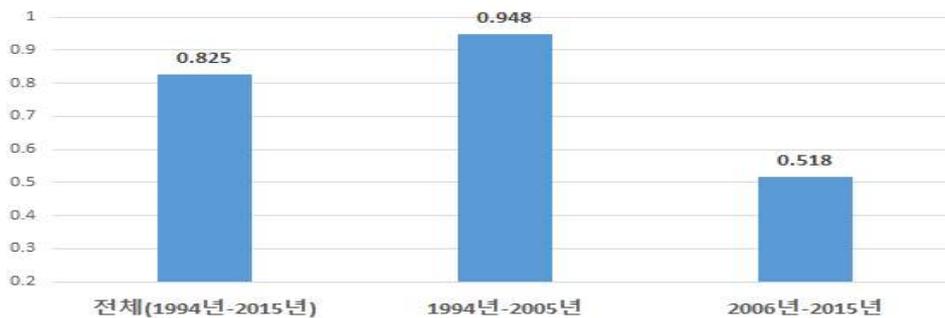
- 건설고용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94~05년 사이의 건설수주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0.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06~15년 역시 0.51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06~15년 사이의 상관계수가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건설투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건설 종사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그림 2-11] 건설투자와 총 종사자수 추이(1994년~2015년)



자료: 통계청, 건설업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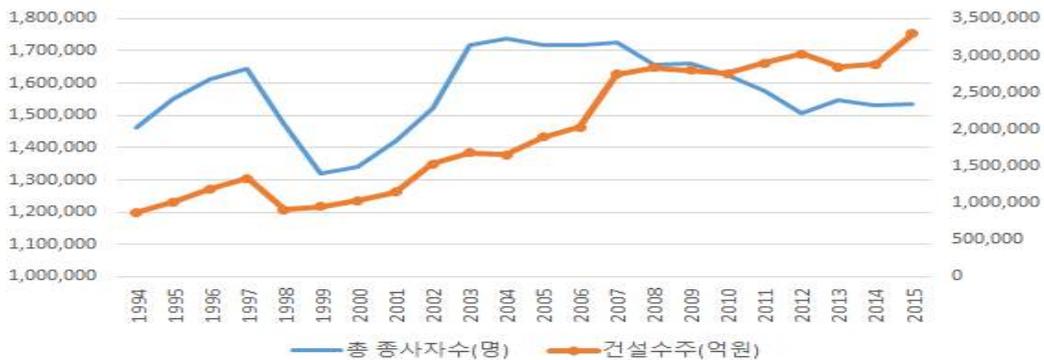
[그림 2-12] 건설투자와 총 종사자수 간의 상관관계



2) 건설수주와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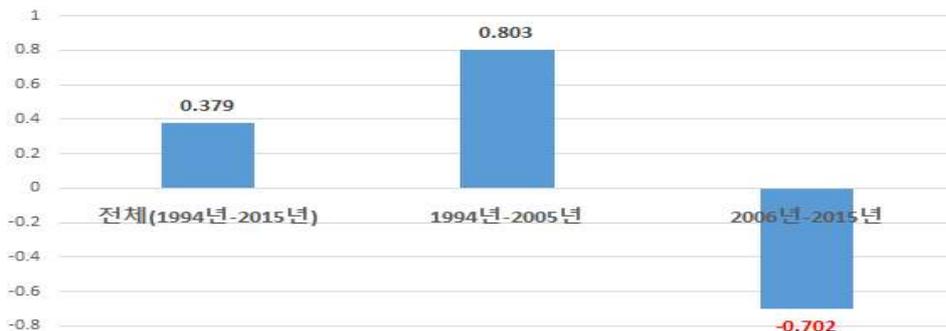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업 종사자 수는 정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비해, 건설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특히, 건설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5년에는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14.3% 증가한 가운데, 건설 종사자 수의 증가는 0.1%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설수주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0.37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다만, 2005년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양쪽의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그림 2-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건설수주와 고용의 움직임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임.
 - 그 결과, 건설수주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94~05년에는 0.8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06~15년에는 -0.702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2-13] 건설수주와 총 종사자수 추이(1994년~2015년)



자료: 통계청, 건설업조사

[그림 2-14] 건설수주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



3) 건설기성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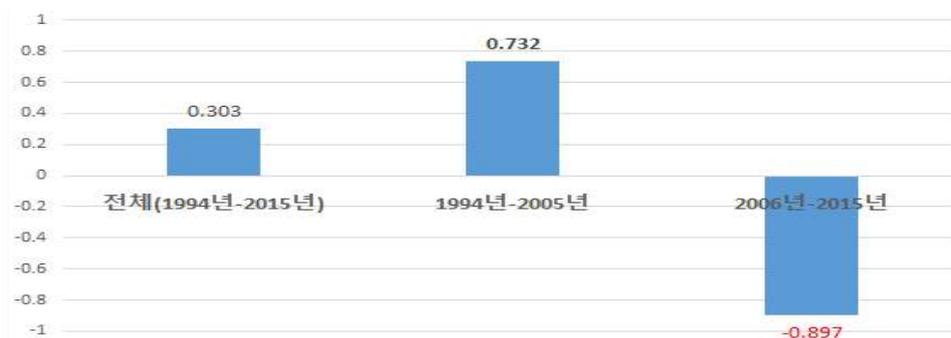
- 건설기성은 건설수주에 비해 등락이 완만하고 진폭은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건설업 근로자 수는 2004년 전후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건설기성과 건설고용의 상관관계는 건설수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설기성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0.303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또한 건설기성 역시 2005년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양쪽의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건설기성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94~05년에는 0.73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06~15년에는 -0.897로 오히려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그림 2-15] 건설기성과 총 종사자수 추이(1994년~2015년)



자료: 통계청(2016), 건설업조사

[그림 2-16] 건설기성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



4) 전문건설업 수주와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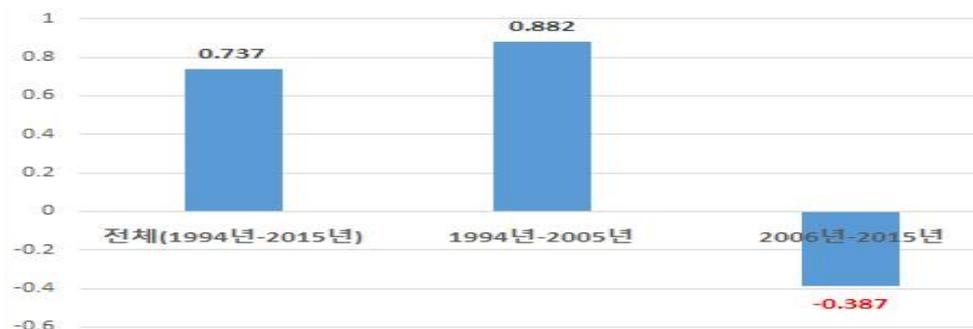
- 전문건설업은 1975년 단종공사업으로 제도화된 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
 - 도입초기 1,000억원 남짓했던 시장규모는 2015년 85.5조원으로 성장하면서 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위상이 증대됨.
 - 2010년을 기점으로 전문건설업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주택시장 호조로 계약액이 다시 증가하였음.
- 전문건설업의 종사자수는 200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 전문건설업 수주와 고용의 1994~2015년 간 상관관계는 0.737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앞에서 분석한 바와 동일하게 2005년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전문건설업 수주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94~05년에는 0.882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06~15년에는 -0.3877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그림 2-17] 전문건설업 수주와 총 종사자수 추이(1994년~2015년)



자료: 통계청(2016), 건설업조사

[그림 2-18] 전문건설업 수주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



Ⅲ. 건설업 고용창출효과 분석

1.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개요

- 건설업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산업별 고용능력을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파악하고자 함⁹⁾.
- 일자리 창출효과 파악을 위해 건설투자액, 산업별 기성액 및 부가가치액의 고용탄력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조건 개선효과 파악을 위해 건설투자액, 산업별 기성액 및 부가가치액의 임금탄력성 분석을 수행함.

2) 분석자료¹⁰⁾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조사하는 건설업조사 데이터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건설업조사는 건설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중 조사기준 연도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건설업조사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전체 종업원 수, 사무직 종업원 수, 기술직 근로자 수, 기능직 근로자 수, 임시직 근로자 수, 급여총액, 기성액, 부가가치액 등의 데이터를 수집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건설투자액 데이터를 구득함.
 - 다만, 건설투자액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 동일하게 우리나라 건설투자액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9) 통계청의 산업분류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 및 전문건설업 업종 분류는 차이가 존재함. 본고에서는 고용 및 임금탄력성 분석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며, 비교를 위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함.

10)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구득할 수 있으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조사 및 발표하는 건설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다만, 건설투자액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므로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함.

- 분석대상기간은 1994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함¹¹⁾.
- 건설투자는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동행지표로서, 국민계정(GDP)에서 시설물 구축 등 건설활동으로 인한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중간재, 증개수수료,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임.
 -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총자본형성내역을 자본재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연도 가격 및 기준연도 가격 기준으로 작성됨.
 - 자본형태별 총자본형성은 건설 및 기계설비투자를 형태에 따라 나눈 것으로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기타 구축물 및 토지개량 등으로 구분됨.
- 산업별 기성액은 건설업체에서 공사의 완공여부나 대금의 수취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시공한 공사액으로 조사됨.
 - 공사수주금액 중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원도급자의 외주공사액)을 준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기성액에서 제외함.
- 산업별 부가가치는 급여총액, 퇴직급여(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포함), 복리후생비(보험료 포함), 임차료,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 영업이익, 납부부가가치세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사됨¹²⁾.
- 본고에서 활용되는 건설업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사무직근로자는 공사현장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급사, 사환, 수위 등)으로 구성됨.
 - 기술직근로자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또는 전문직 기술자가 지시한 작업내용을 원활하게 응용하여 기술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됨.
 - 기능직근로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①고등학교 졸업자와 ②6개월 이상 조직적인 기술습득을 요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칭 숙련공을 말함.
 - 임시직근로자는 1년 미만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일수 및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 종사자로 정의됨.

11) 실제 구축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임.

12)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등에 비해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존재함.

3) 분석방법

□ 고용탄력성

- 고용탄력성은 고용인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고용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비모수적인 방법과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 가장 널리 알려진 고용탄력성의 정의로는 호탄력성(arc elasticity)을 이용한 측정 방법으로 1%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때 변화하는 취업자 증가율임.

$$\varepsilon = \frac{\Delta L/L}{\Delta Y/Y} \quad (\varepsilon: \text{고용탄력성}, L: \text{취업자수}, Y: \text{실질 GDP})$$

- 이를 건설업에 적용하면 실질GDP를 대신하여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¹³⁾.
-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건설투자액, 건설기성액, 부가가치액과 건설업 종사자 직종별(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임시직) 고용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
- 종속변수는 고용인원이며, 설명변수는 기성액, 부가가치액, 건설투자액을 각각 사용함.

$$\ln(E) = \beta_0 + \beta_1 \ln(X) + u$$

□ 임금탄력성

- 임금탄력성은 임금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고용탄력성이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등에 대해 고용창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임금탄력성은 실질 임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용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임금탄력성 역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건설투자액, 건설기성액, 부가가치액 및 근로자 직종별 급여총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
- 종속변수는 급여총액이며, 설명변수는 기성액, 부가가치액, 건설투자액을 각각 사용함.

$$\ln(W) = \beta_0 + \beta_1 \ln(X) + u$$

13) 건설계약(건설수주)의 경우 선행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용 변수에서 배제하였음.

2.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 고용탄력성 산출을 위한 고용인원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전체 근로자 수, 사무직근로자 수, 기술직근로자 수, 기능직근로자 수, 임시직근로자 수를 각각 사용함.

1) 건설투자액의 고용탄력성

-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건설업은 0.743%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투자 1%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직종별 고용은 기술직 근로자가 3.33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가 1.635% 증가, 기능직근로자 0.749% 증가로 각각 나타남. 임시직근로자의 경우 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고용은 0.01%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¹⁴⁾.
- 종합건설업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건설투자액이 1% 증가할 경우 전체 근로자는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액 증가는 종합건설업에 있어 기술직근로자(2.391%)와 사무직근로자(0.637%)의 고용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기능직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음(-)의 탄력성을 보여 건설투자액이 증가할 때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됨.
 - 이는 건설공사가 이미 전문화, 분업화 등이 고도화되어 있어, 종합건설업이 실제로 직접시공에 필요한 기능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전문건설업은 1.121%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남.
 - 건설투자액이 1% 증가할 경우 전문건설업의 전체 근로자는 1.121%, 사무직근로자는 2.335%, 기술직근로자는 4.418%, 기능직근로자는 1.235%, 임시직근로자는 0.4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건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건설투자액의 증가는 전문건설업의 임시직 및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기술직과 사무직근로자의 고용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건설투자액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인 건설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기능직근로자의 고용탄력성이 종합 및 전문건설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음¹⁵⁾. 다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임시직근로자의 고용탄력성이 -0.935로 음(-)의 계수값을 보였음.
- 요약하면, 건설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과 종합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문건설업은 전체 근로자, 기술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의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임시직근로자의 경우 전문건설업만이 고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건설투자액의 고용탄력성

구 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0.743***	0.028	1.121***	0.884***
사무직 근로자	1.635***	0.637*	2.335***	2.818***
기술직 근로자	3.331***	2.391***	4.418***	3.884***
기능직 근로자	0.749***	-1.079**	1.235***	2.449***
임시직 근로자	0.009	-1.043*	0.479**	-0.935*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15) 이는 앞서 통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기능직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음.

2) 건설기성액의 고용탄력성

- 건설기성액이 1% 증가했을 때 건설업은 0.079%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설투자에 비해 건설기성액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기성액 1%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직종별 고용은 기술직 근로자가 0.85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가 0.297% 증가, 기능직 근로자 0.17% 증가로 각각 나타남. 다만, 임시직근로자의 경우 건설기성 증가에 따라 고용이 오히려 0.1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역시 건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종합건설업의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건설기성액이 1% 증가할 경우 전체 근로자는 오히려 0.1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의 건설기성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기술직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은 모두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임.
 - 따라서 건설기성액으로 판단할 경우, 종합건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은 건설기성액 1% 증가에 따라 전체 근로자가 0.2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업 사무직근로자 0.574%, 기술직근로자 1.188%, 기능직 근로자 0.308%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임시직근로자에 대해 전문건설업 건설기성액의 고용탄력성은 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건설기성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기성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대체적으로 양(+)의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도출됨.
 - 건설투자액 분석과 동일하게 기능직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기성 증가에 따른 임시직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기성액 증가에 따른 건설업 고용효과는 건설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업종별 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대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건설업은 전체 근로자와 기술직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근로자의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건설기성액 증가에 따른 임시직근로자의 고용은 대체적으로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건설기성액의 고용탄력성

구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0.079*	-0.123**	0.203***	0.141***
사무직 근로자	0.297***	-0.043	0.574***	0.586***
기술직 근로자	0.858***	0.587***	1.188***	0.886***
기능직 근로자	0.170***	-0.299***	0.308***	0.551***
임시직 근로자	-0.156***	-0.466***	-0.003	-0.321***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부가가치액의 고용탄력성

- 부가가치액이 1% 증가했을 때 건설업은 0.124%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보면 부가가치 1%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직종별 고용은 기술직 근로자가 1.17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가 0.421%, 기능직근로자 0.234%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 역시 임시직근로자의 고용은 오히려 0.19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세부 직종별 고용탄력성은 대체적으로 건설기성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고용탄력성 값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의 부가가치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부가가치액이 1% 증가할 경우 전체 근로자는 오히려 0.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의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기술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종은 모두 음(-)의 고용탄력성을 보임.
- 전문건설업의 부가가치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대체적으로 양(+)의 탄력성을 보임. 부가가치 1% 증가에 따라 전문건설업 전체 근로자는 0.28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업 사무직근로자 0.792%, 기술직근로자 1.685%, 기능직 근로자 0.432%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임시직근로자는 전문건설업 부가가치에 대해 고용탄력성은 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부가가치액 1% 증가에 따라 전체근로자가 0.2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을 이용한 분석과 동일하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근로자의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임시직근로자의 고용탄력성은 음(-)의 값으로 도출됨.
-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액의 고용탄력성은 건설투자에 비해 적고, 건설기성액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건설업 고용효과는 전문건설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체 근로자와 기술직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근로자의 고용 효과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3〉 부가가치의 고용탄력성

구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0.124**	-0.120*	0.288***	0.238***
사무직 근로자	0.421***	-0.008	0.792***	0.892***
기술직 근로자	1.179***	0.703***	1.685***	1.341***
기능직 근로자	0.234***	-0.375***	0.432***	0.869***
임시직 근로자	-0.194**	-0.517***	-0.005	-0.46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임금탄력성 분석결과

- 임금탄력성 산출을 위한 임금액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급여총액을 사용하였으며, 건설투자액, 건설기성액, 부가가치액 증가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살펴봄.

1) 건설투자액의 임금탄력성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투자액 증가에 따른 임금탄력성은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임.
- 건설투자액이 1% 증가에 따른 건설업 전체의 임금상승 효과는 2.516%로 분석되었음.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업이 2.608%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임금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종합건설업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이 2.35%로 동일하게 나타남.
- 또한 건설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이 2.516인데 비해, 기술직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은 4.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 3.545, 기능직 근로자 2.157, 임시직근로자 1.644의 순으로 각각 도출됨.
 - 이는 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기술직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임시직근로자는 적었음을 의미함.
- 건설투자액 증가에 따른 세부 직종별 임금탄력성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임금탄력성이 4.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건설업(4.073)과 종합건설업(3.042)의 순으로 각각 도출되었음.
 - 기술직근로자는 전문건설업의 임금탄력성이 5.6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5.096)과 종합건설업(4.565)의 순으로 나타남.
 - 기능직근로자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임금탄력성이 3.6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건설업(2.407)과 종합건설업(1.350)의 순으로 나타남.
 - 임시직근로자는 전문건설업의 임금탄력성이 1.9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합건설업(0.908)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0.7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 건설투자액의 임금탄력성

구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2.516***	2.350***	2.608***	2.350***
사무직 근로자	3.545***	3.042***	4.073***	4.455***
기술직 근로자	4.987***	4.565***	5.605***	5.096***
기능직 근로자	2.157***	1.350**	2.407***	3.612***
임시직 근로자	1.644***	0.908**	1.947***	0.729***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건설기성액의 임금탄력성

- 건설기성액 역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 임금탄력성이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임. 다만, 건설투자액에 비해 탄력성 계수값은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었음.
- 건설기성액이 1%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전체 임금은 0.6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금상승 효과는 종합건설업이 0.62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건설업(0.61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0.593%)의 순으로 각각 분석되었음.
 - 또한 임금탄력성은 기술직근로자가 1.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 0.942, 기능직근로자 0.625, 임시직근로자 0.312의 순으로 각각 도출됨.
- 한편, 전체 근로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임금탄력성이 높는데 비해,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근로자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임금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건설기성액의 임금탄력성

구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0.618***	0.622***	0.614***	0.593***
사무직 근로자	0.942***	0.820***	1.078***	1.204***
기술직 근로자	1.421***	1.366***	1.509***	1.402***
기능직 근로자	0.625***	0.483***	0.673***	1.066***
임시직 근로자	0.312***	0.102	0.392***	0.057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부가가치액의 임금탄력성

- 부가가치의 임금탄력성은 건설투자에 비해서는 적고, 건설기성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액이 1%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종 전체 임금은 0.86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가가치 증가에 따라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모든 업종의 임금탄력성은 양(+)의 탄력성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부가가치 1%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0.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0.780%), 종합건설업(0.766%)의 순으로 각각 분석되었음.
 - 또한 임금탄력성은 기술직근로자가 1.9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 1.299, 기능직근로자 0.862, 임시직근로자 0.458의 순으로 각각 도출됨.
- 근로자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근로자와 기능직근로자의 경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임금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은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시직근로자의 임금탄력성의 경우 전문건설업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

〈표 3-6〉 부가가치액의 임금탄력성

구 분	건설업전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전체 근로자	0.868***	0.766***	0.914***	0.780***
사무직 근로자	1.299***	1.143***	1.476***	1.656***
기술직 근로자	1.946***	1.866***	2.073***	1.930***
기능직 근로자	0.862***	0.665***	0.929***	1.463***
임시직 근로자	0.458***	0.176	0.565***	0.093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소 결

□ 고용탄력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용탄력성의 계수값은 설명변수로 건설투자액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 건설기성의 순으로 도출되었음. 따라서 분석결과로만 판단하면 건설투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건설업 업종별 고용탄력성은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음. 건설 투자액, 건설기성액, 부가가치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 모두 전문건설업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전문건설업만이 고용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인 건설시공의 주체라는 점에서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3-1] 고용탄력성 분석결과



□ 건설 업종별 임금탄력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에 대해 임금탄력성은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였음.
- 건설투자 및 부가가치 증가에 따른 임금개선 효과는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기성은 종합건설업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근로자 세부 직종별 임금개선 효과는 기술직근로자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 기능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¹⁶⁾는 2014년 기준 10.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업은 최종수요 10억원에 의해 유발된 고용 10.2명 중 직접 고용계수가 5.9명, 간접효과에 의한 고용유발이 4.3명으로 나타남.
 - 이는 건설업 최종수요가 1조원 증가하면 건설업 고용유발효과에 따라 1만명 정도의 고용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고, 이중 직접 창출되는 고용이 5,900명 가량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투자와 기성이 200조가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 최종수요가 1%(2조원) 증가할 경우 고용은 약 11,800명 증가함.
 - 본고에서 분석한 고용효과 중 건설투자의 고용탄력성이 0.743%임을 감안하면, 건설투자가 1% 증가하면 고용은 11,397명(전체: 1,533,976×0.743%)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산업연관표 상의 고용계수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표 3-7〉 건설업 고용유발효과 추이 (단위: 명/10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용유발계수 (직접효과+간접효과)	10.5	10.4	10.6	10.1	10.2
고용계수 (직접효과)	5.9	5.9	6.3	5.9	5.9
고용유발효과 (간접효과)	4.6	4.5	4.3	4.2	4.3

자료: 한국은행 연도별 산업연관표

16) 고용유발계수는 어떤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산업에서 동 금액만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인원인 직접효과(=고용계수)와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인원인 간접 고용유발효과로 구분됨.

[고용유발계수 = 고용계수 + 간접고용 유발효과]

IV. 결 론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는 건설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증가에 따라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이 어떠한 추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 모두 건설투자¹⁷⁾ 증가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가가치, 건설기성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투자액이 1% 증가했을 때 0.743%의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직종별로는 기술직근로자(3.331%)의 증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직근로자(1.635%), 기능직근로자(0.749%), 임시직근로자(0.01%)로 각각 도출되었음.
-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의 증가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는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개선 효과는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건설투자 등의 증가가 고용부문에 있어 하도급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함. 따라서 건설업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발주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탄력성과 임금탄력성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투자 및 기성 등과 고용, 임금은 양의 탄력성을 보임.
 - 또한 건설업은 임시직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능직, 기술직, 사무직근로자도 많이 고용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의 호황 등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임(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17) 건설투자의 경우 고용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도 건설수주,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건설수주는 당장 201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설투자 역시 2018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투자, 건설기성, 부가가치 등의 추세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됨.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7%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역시 크기 때문임.
-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건설산업 내 현재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함.

- 박선구, 연구위원(parksungu@ricon.re.kr)
- 홍성호, 연구위원(hsh3824@ricon.re.kr)

참 고 문 헌

1. 강민정 · 심규범(2016), 2015~2020 건설산업 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 고용노동부(2016), 임금근로 실태조사
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2016),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홍보자료
4.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7),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5. 방하남 외(199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심규범(2009), 건설업의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월간 노동리뷰(4월)
7. 통계청(2016), 건설업 조사
8.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9.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해설서
10.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
11. 한국은행(2017), 국민계정
12. 현대경제연구원(2016), 취약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2017년 08월 22일 인쇄

2017년 08월 22일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31-9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